

삼국유사(紀異 제1권), 2014년 3월 15일

기이: 제왕이 될 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일 발생, 큰 변의 틈을 타서 大器를 잡아 대업 성취 가능, 이런 연고로 기이편을 둔다

주나라 호왕(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해줌으로써 조선이라 했다. 한나라에서는 세군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는데, 현도, 낙랑, 대방이다.

前漢書 조선전 인용, 위만조선에 대한 설명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도의 네군으로 삼았다.

<마한>

魏志 마한에 대한 설명

위만이 조선을 공격하자 조선왕 準은 궁인과 좌우 사람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남쪽 漢의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마한이라 했다.

四夷, 九夷, 九韓, 穢貊이 있는데 周禮에 직방씨가 사이와 구이를 관장했다고 하는 것은 東夷의 종족이니 곧 구이를 말한 것이다.

회남자에는 동방의 오랑태는 아홉종류가 된다.

論語正義에 九夷란 현도, 낙랑, 고려, 만식, 부유, 소가, 동도, 倭人, 천비이다.

海東安弘紀에는 구한이란 日本, 中華, 오월, 탁라, 응유, 말갈, 단국, 여진, 맥락이다.

전한서

전한 제8대 효소제는 평나와 현토군을 평주도독부로, 임둔, 낙랑 등 2군을 동부도위부로 두었다.

칠십이국: 고조선의 유민

낙랑국

고구려 3대 무휼왕이 낙랑을 멸망시켰다.

백제 온조왕: 동쪽에 낙랑이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

말갈과 발해

通典

조영이 죽자 세자가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明皇은 그를 책봉하여 왕위를 있게 했다. 사사사이 연호를 고치고 드디어 海東의 큰 나라가 되었다.

## 東明記

신라 제6대 지마왕 14년에 말갈의 군사가 북쪽 국경으로 크게 들어와 대령의 성책을 습격하고 泥河로 지나갔다.

이서국(경북 청도군에 있던 나라의 신라 때 이름)

노례왕 14년에 이서국 사람들이 와서 금성을 공격했다.

오가야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동명제, 고구려의 시조)

고구려 주몽(동명왕)에 대한 설명

변한과 백제(남부여, 사비성)

진한

후한서에서 秦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韓國에 오자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빼어주었다. 그리고 서로 부르기를 徒라고 하여 秦의 언어에 가까웠다. 그런 때문에 秦韓이라고 하였다.

\* 삼국이 구역을 확정하여 정립되는 과정에서 정체성(identity)의 문제

신라시조 혁거세왕

제2대 남해왕: 남해왕 때 낙랑국 사람들이 금성을 침범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남해왕 15년에 고구려의 裨屬 일급나라가 와서 항복(來投)했다.

제3대 노례왕: 建虎 18년에 이서국을 쳐서 멸망시켰다. 이 해에 고구려(高麗) 군사가 침범해 왔다.

제4대 탈해왕

김알지, 脫解王代

제14대 유리왕 때 이서국 사람들이 금성을 공격해 왔다. 신라에서도 크게 군사를 동원했으나 오랫동안 저항할 수가 없었다.

제17대 나밀왕 36년

왜왕의 사신: 신 등으로 하여금 백제가 지은 죄를 대왕에게 아뢰게 하였으므로 왕자 한분을 보내 우리 왕에게 성의를 표하십시오

셋째 아들 미해를 보냈으나 30년 동안 억류

제상이라는 인물을 파견하여 미해의 탈출을 시켰을 때 왜왕에 대한 답변

“차라리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소. 차라리 계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왜국의 爵祿은 받지 않을 것이오.”

눌지왕 3년 고구려 장수왕의 사신이 “우리 임금은 대왕의 아우 보해가 지혜와 제주가 뛰어난다는 말을 듣고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여 특별히 소신을 보내어 간청하는 바입니다.”

화친의 마음을 정하고 보해를 고구려에 보냈는데, 억류

제22대 지철로왕 때 아슬라주(명주) 동쪽 바다에 우릉도가 있는데, 오랑캐(夷)들이

교만하여 신복(不臣)하지 않으므로 이찬 박이종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게 했다.

진흥왕 때 백제가 珍城을 침범하여 남녀 3만 9천명과 말 8천필을 빼앗아 갔다. 이에 앞서 백제가 신라와 군사를 합쳐 고구려를 치자고 한 제안에 대해 거절한 보복  
진덕왕: 친히 태평가를 지어 비단을 짜서 그 가사로 무늬를 놓아 사신을 시켜 당나라에 바치게 했다.

#### 태종 춘추공

태자로 있을 때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를 청하려 당나라에 간 사신  
김인문을 사신으로 당나라에 파견하여 청병하였고 소정방이 이끄는 13만의 군사와  
김유신이 이끄는 정병 5만명이 백제 공격  
개백과의 황산벌 전투

문무왕 5년 부여 용과의 만남에서의 글: 신라에 의지하여 길이 우방이 되어(長爲與國) 각각 목은 감정을 없애고 좋은 誼를 맺어 화친하게 지낼 것이며 삼가 조서의 명을 받을 영원히 번국(藩服)이 될 것이다.

백제, 고구려에 이어 당나라가 신라를 치려는 것을 간파하여 격파  
백제의 부흥

魏書, 前漢書, 魏志

연호를 사용

예: 永元(南朝 齊王 東昏侯의 연호)

하늘이 내려준 옥대, 선덕왕이 미리 알았던 세가지 일, 연오랑 세오녀, 김유신